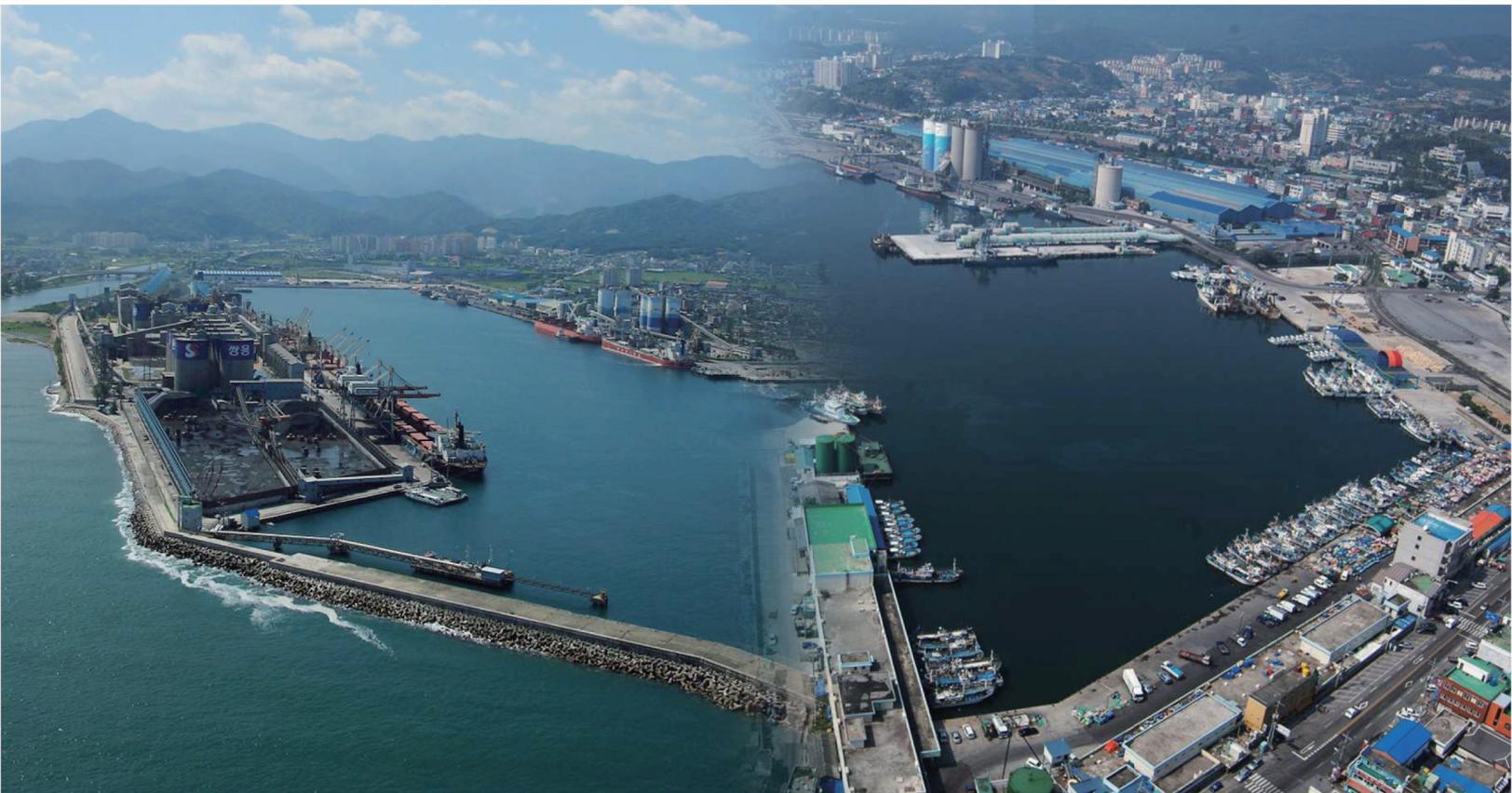




발간년월 2019년 01월(제3호) 발행처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주 소 (25798) 강원도 동해시 공단1로 177 자유무역지역관리원 3층
발간년월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물류연구기획팀 담 당 센터장 총 괄 이사장 Tel 033-522-6503 Fax 033-522-6505



Contents

● 동해·묵호항주요이슈

- 동해항 3단계 개발 현황

● 항만·물류 통계동향

- 동해·묵호항 지역별 화물처리 실적
- 극동러시아 화물처리실적 및 수출입 물동량

● 항만·물류 정책동향

- 2018 동해포럼
- 남북 철도·도로 공동조사 및 착공식

● 주변국 국제동향

- 러시아동향
- 북한동향

● 강원권 산업동향

- GS전력
- LS전선

● 항만·물류 관련 용어사전

동해 · 묵호항 주요 이슈

동해항 3단계 개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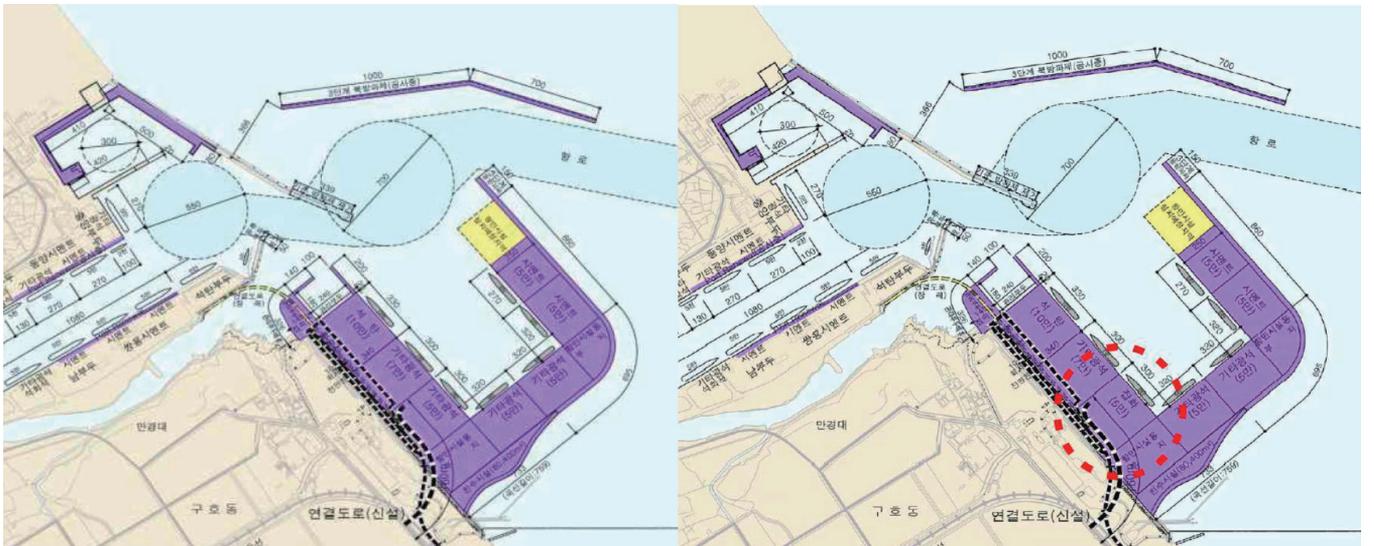
동해항 비상을 위한 날개짓 (동해신항만 건설)

본 센터에서 발행했던 전월호(12월)에 소개된 ‘동해항의 비상’편에서 동해신항만 건설에 대한 내용을 일부 언급하였다.¹⁾

동해항은 석탄, 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가 드나드는 강원권 유일의 국가 관리 무역항이다. 하지만 화물 부두가 부족하여 체선율²⁾이 2012년 이후 전국 평균(4.5%)의 4배를 넘는 수준(15년 기준 20.7%)이라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이 시급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동해신항을 확장 개발하여 동해항을 환동해권 거점 물류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인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³⁾

최초 기타광석부두 4개, 석탄부두 1개, 시멘트부두 2개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기타광석부두 3개, 잡화부두 1개, 석탄부두, 1개, 시멘트부두 2개로 변경됐다.



출처 :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_별책(동해묵호항), 2018

동해묵호항 계획평면도(동해지구) 변경고시

동해항, 복합물류항으로 한걸음 다가가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항 3단계 민자부두 내에 잡화부두를 개발하는 전국무역항기본계획 변경안이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과해 변경 고시되었다.

이번 고시를 통해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2023년까지 부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5만 톤급 1선석으로 개발되는 잡화부두는 강원권 및 강원 인근 지역 화물의 수출입 부두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은 2021년까지 국가예산 8,235억 원을 들여 외곽 및 접안 시설, 임항 교통시설, 친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민자 7,658억 원을 유치해 5만 톤급과 7만 톤급, 10만 톤급 규모의 부두 7개를 오는 2023년까지 확충할 예정이다.⁴⁾

1) 자세한 내용은 12월호 참고

2) 선박입항지체율

3)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6.12.28, 신항만(제주, 동해) 건설 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고시

4) 강원타임즈, 2018.09.21, http://www.kwtimes.co.kr/n_news/news/view.html?no=73707

또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동방과 컨소시엄으로 사업비 1,800억 원을 들여 갑화부두 조성에 투자키로 하고 사업의향서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수청은 2019년 6월 이전까지 사업의향서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추가 신청자를 접수 받아 공개입찰 할 예정이다.

현재 10만 톤급 접안이 가능한 부두에는 GS글로벌, GS E&R, GS건설, 쌍용로지스틱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다.⁵⁾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필요성 (목적)	· 동해항의 선박체선 해소 · 북한, 러시아 등 북방교역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 · 국책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지역낙후도 : 강원도 14/16, 동해시 73/168)
사업효과	· 하역능력 22백 만톤 → 41(+19), 접안능력 16척 → 23(+7)
규 모	· 재정 : 방파제 1.85km, 방파호안 2.3km, 관리부두 200m, 해안보호대책시설1식 등 · 민자 : 안벽 2,180m, 최대 10만 톤급 부두 7선석
기 간	· 2013~2023

자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추진 개요, 2018 동해항 포트세일(2018. 10.)

동해항 3단계 추진경위

구 분	내 용
재정사업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11, 해양수산부) 후, 예비타당성조사('12, 기재부), 설계용역('13~16, 동해청), 환경영향평가('14~16, 환경부) · 북방파제 1.7km가 '16.5월착공, 후속사업인 방파호안 2.3km 중 1공구 1.3km는 '17. 6월 착공, 2공구 1.0km는 12월 우선시공분 착공
민자사업	· 석탄부두 1선석(10만 톤급) 사업자 선정 완료(GS글로벌)

자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추진 개요, 2018 동해항 포트세일(2018. 10.)

■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동해시 지역 현안 건의

심규언 동해시장은 2018년 12월 21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동해항을 남북경협이 중심 항만으로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 될 시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평화공단건설, 철로·육상을 이용한 협력 사업에 앞서 남북항만을 이용한 북한광물 반입, 시멘트 등 대북물자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동해항을 이용한 남북교류사업을 기반으로 동해항에 대한 정부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동해항 3단계 민자사업으로 계획된 4, 5번 선석을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 경제자유구역과 동해자유무역지역의 북한 광물 및 수산자원 가공수출기지 활용, 동해항~나진(청진)간 정기 물류항로 개설을 위한 정부의 관심 촉구, 동해항 주변 피해주민 이주와 복합 물류항만 개발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건의하였다.

5) 강원도민일보, 2018.09.28,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31977>

동해묵호항 지역별 화물처리 실적

■ '18년 1~11월 동해 · 묵호항 화물처리 실적은 약 1,318만 톤이며, 극동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남미 지역 순

동해 · 묵호항의 극동아시아지역 화물처리 실적은 449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9.3% 증가하였고, 동남아시아 지역은 252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54.7% 증가, 남미는 147만 톤으로 4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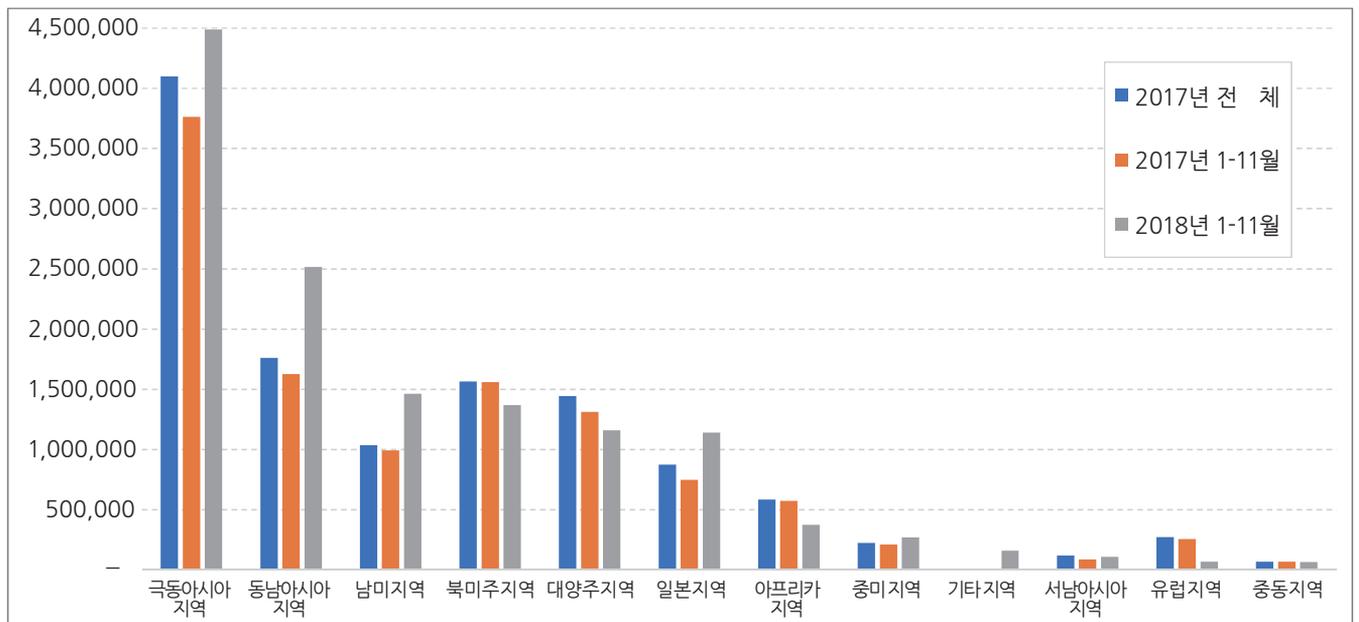
동해 · 묵호항 지역별 화물처리 실적(2015년~2018년 10월)

단위 : 톤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동기 대비(%)
			전체	11월	1-11월	11월	1-11월	
극동아시아지역	3,765,958	3,994,043	4,100,846	284,304	3,763,878	392,515	4,489,080	19.3
동남아시아지역	2,034,157	1,773,411	1,761,184	202,446	1,627,285	80,850	2,517,108	54.7
남미지역	1,606,991	1,378,559	1,036,984	119,686	994,391	155,513	1,465,083	47.3
북미주지역	1,417,888	1,054,012	1,565,612	79,380	1,561,509	104,526	1,370,846	-12.2
대양주지역	1,248,346	1,339,211	1,445,630	182,356	1,314,520	200,359	1,159,910	-11.8
일본지역	754,184	867,605	874,304	62,067	748,680	75,079	1,140,551	52.3
아프리카지역	1,983,115	1,677,627	585,435	22,000	574,618	0	374,889	-34.8
중미지역	329,816	291,959	223,422	0	210,405	0	269,635	28.2
기타지역	0	2,053	0	0	0	48,729	158,509	-
서남아시아지역	35,922	75,545	118,851	0	84,715	0	107,155	26.5
유럽지역	514,725	499,344	270,217	657	255,522	0	67,137	-73.7
중동지역	24,682	148,229	67,473	0	67,473	0	63,371	-6.1
합 계	13,715,784	13,101,598	12,049,958	952,896	11,202,996	1,057,571	13,183,274	17.7

출처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

주요 기간별 동해 · 묵호항 지역별 화물처리 실적 그래프



극동러시아 화물처리실적 및 품목별 수출입 물동량

■ '18년 1~10월 극동러시아 화물처리 수출 실적은 약 22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5.8% 증가, 수입 실적은 약 51억 달러 3.7% 감소

극동러시아 수출 화물처리 실적은 사할린주 125억 달러, 사하공화국 40억 달러, 연해주 27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입 실적은 연해주 34억 달러, 사할린주 5.6억 달러, 아무르주 2.8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극동러시아 화물처리실적 (2017년~2018년 10월)

단위: 천달러

구 분	2017년		2018년1-10월		전년동기대비(%)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사할린주	10,574,596	1,391,243	12,503,181	561,462	41.9	-56.4
사하공화국	4,800,215	147,910	3,973,426	206,101	-3.3	106.4
연해주	3,072,523	3,745,302	2,725,344	3,408,586	19.6	10.7
하바롭스크주	2,138,730	525,444	1,886,463	457,651	26.3	5.3
캄차트카주	700,392	108,947	735,954	68,452	27.2	-21.0
마가단주	404,684	69,361	333,460	57,898	-2.2	-1.4
아무르주	308,618	207,872	308,865	280,592	27.3	57.4
유대인자치주	119,222	34,941	119,582	27,056	64.1	-10.8
추코트카자치주	122,595	57,112	103,186	32,597	-12.7	-18.8
총 계	22,241,575	6,288,132	22,689,462	5,100,396	25.8	-3.7

주: 전년동기대비(%)는 2017년 1-10월 화물처리실적 대비 수치임
출처: 극동러시아 통계청

■ '18년 1~10월 극동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성 제품, 기타제품, 식료품·농수산물 원료 순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장비·운송기기, 식료품·농수산물원료, 화학·고무제품 순

극동러시아 수출 물동량 중 광물성 제품이 138억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수입 물동량 중 자동차 장비 운송기기가 261억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극동러시아 품목별 수출입 물동량 (2017년~2018년 10월)

단위: 천달러

품목(HS)코드	2017년		2018년1-10월		전년동기대비(%)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식료품·농수산물원료(1-24)	2,866,464	954,350	3,142,210	669,134	34.7	-13.8
광물성제품(25-27)	12,150,241	131,172	13,781,038	111,122	37.0	-1.4
화학·고무제품(28-40)	44,762	594,297	44,495	541,111	22.6	11.1
피혁·가죽제품(41-43)	782	15,040	359	15,948	-51.0	26.4
목재, 종이(44-49)	1,054,012	90,800	952,602	72,521	8.1	-6.0
섬유제품, 신발(50-67)	2,378	287,535	1,750	285,266	-12.41	6.0
금속, 금속제품(72-83)	295,502	547,739	451,494	483,189	101.0	4.1
자동차·장비·운송기기(84-90)	1,861,140	3,326,640	855,782	2,608,210	-20.4	-8.2
기타제품(68-71, 91-97)	3,966,293	340,560	3,459,732	313,895	1.0	13.3
총 계	22,241,575	6,288,131	22,689,462	5,100,396	25.8	-3.7

주: 전년동기대비(%)는 2017년 1-10월 화물처리실적 대비 수치임
출처: 극동러시아 통계청

2018 동해포럼

■ 남북교류협력과 동해안의 역할

강원도와 동해시가 주최하고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주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후원으로 12월 12일 '2018 동해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심규언 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남북교류협력과 동해안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을 구현하기 위한 동해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기조강연에 나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승환 회장은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싱가포르 선언 이후 비핵화 로드맵은 빠르면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등 정전체제의 실질적 청산작업과 부분적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거쳐 2020년 이내 안전보장 조치 완료의 출구를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첫번째 주제발표에 이인우 한국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개발사업단장은 북한의 광물자원현황과 개발 가능성에 대해 에너지 · 자원 협의체 구성 등 경제협력 기반구축 마련, 동해항 거점 에너지 · 자원기업 협력 추진을 위한 광물자원 물류센터 설립 등을 제언했다.

두번째 주제발표로는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 · 물류연구본부장이 남북교류와 해운항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환동해권 물류네트워크와 북한 해운항만물류 현황을 발표하며, 강원도와 동해시 지자체는 북한 항만들로 공산품을 수출하는 항로 조기 개설과 동해 복합물류 비즈모델과 4계절 환동해 크루즈 운영 등을 제시했다.

세번째 주제발표로는 김재진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추진방향에 대해 북강원도 교류협력, 북방경제산업 생태계 조성, 대북교류 협력의 심화와 확대, DMZ 평화지대화 등으로 강원 평화경제이니셔티브의 기본틀을 내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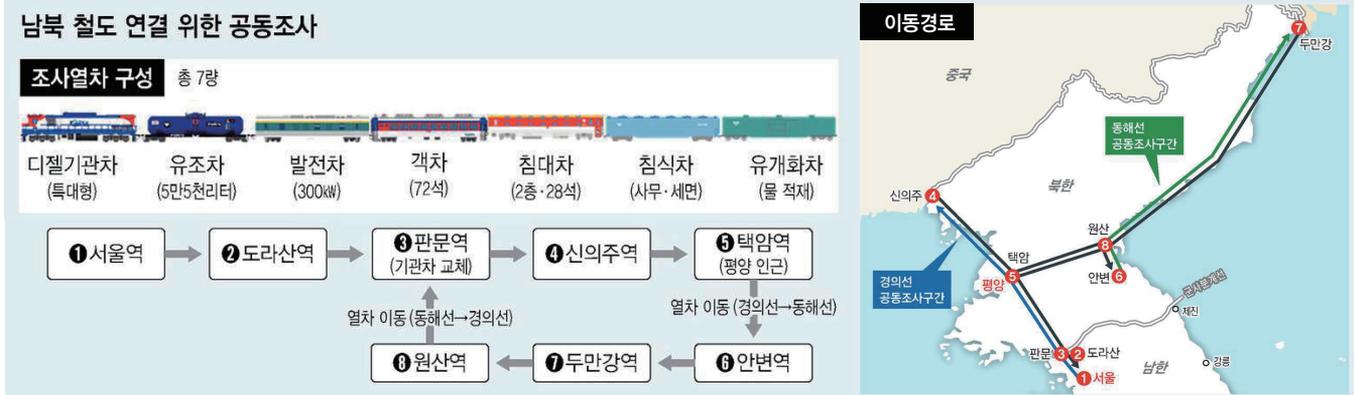


2018 동해포럼

남북 철도 · 도로 공동조사 및 착공식⁷⁾

남북 철도 · 도로 연결을 위한 첫 삽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11월 30일부터 경의선→동해선 순으로 18일 동안 진행되었다. 남북이 공동조사한 구간은 북쪽 철도 구간은 경의선 412km, 동해선 781km 외에 신의주-평양-원산 이동하여 총 2,600km를 공동조사 하였다.



자료 : 한겨레 신문(2018.11.28)

남북 철도 공동조사 열차 구성 및 이동 경로

남북 도로 공동조사는 지난 8월 남북이 8일 동안 경의선 도로 북측 개성-평양 구간에 대한 부분을 공동조사 하였다.

12월 21일부터 나흘 간은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하였고, 통일부에서는 동해선 도로 조사를 위한 우리측 조사단 10여명이 고성에서 원산까지 약 100km 구간 조사 후, 24일에는 경의선 개성 지역 약 4km 구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경의선 · 동해선 철도 ·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12월 26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측 참석자 100여 명은 새마을호 9량으로 편성된 특별열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출발하였다. 착공식은 축사와 침묵서명식, 궤도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착공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국이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착공식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하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25일 착공식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하였다.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주변국 국제 동향

러시아 동향

올레그 코제야코, 연해주 주지사 당선⁸⁾

12월 16일 연해주 주지사 선거에서 올레그 코제야코가 61.88%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연해주 선거관리위원 의장 나탈리야 카마에바에 따르면 유권자 약 68만 명 중 46.5%가 참여했으며, 올레그 코제야코의 투표율이 50% 이상을 얻었고 법에 따라 연해주 주지사로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극동의 수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전⁹⁾

블라디보스톡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해당 법령에 서명한 후 12월 13일 공식적으로 극동연방지구의 수도가 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례 기자 회견에서 극동연방지구의 수도를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전하는데 대해 “블라디보스톡은 매우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극동지역의 진정한 중심이며 인근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의 이전은 합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극동 연방 지구의 수도가 된 블라디보스톡을 설명하는 푸틴대통령

해수부, 2019년 항만정책 설명회 개최¹⁰⁾

해양수산부가 내년 항만정책의 방향과 항만 관련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내년 항만정책의 방향과 총 1조 2,916억 원으로 책정된 항만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대한 정부의 주요 발주 및 신규 민간유치 사업 등을 업·단체에 소개하기 위한 자리이다.

내년부터 달라질 항만개발 정책 발표를 한 해수부 김명진 항만개발과장은 전국 항만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세운 항만 건설 계획인 ‘신항만기본계획’의 대상 항만을 기존 10개에서 12개로 변경해 ‘10+2 신항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8) 연해주정부, 2018.12.17, <https://www.primorsky.ru/news/155173/>

9) 연해주정부, 2018.12.20, <https://www.primorsky.ru/news/155452/>

10) 코리아쉬핑가제트, 2018.12.26, 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20397

북한동향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주요 키워드는 ‘첨단산업’과 ‘관광’¹¹⁾

북한의 최신 경제지구 현황을 보여주는 북한의 외국문출판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중앙급개발구와 시도 개발구 그리고 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첨단기술 등 분야별로 총 27개 경제지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2016년 1월 신의주 경제지구 자료와 이번 최신자료를 비교해 보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개발구’, ‘경원경제개발구’, ‘강남경제개발구’ 3개 지구가 새로 만들어진 반면, 개성공업지구는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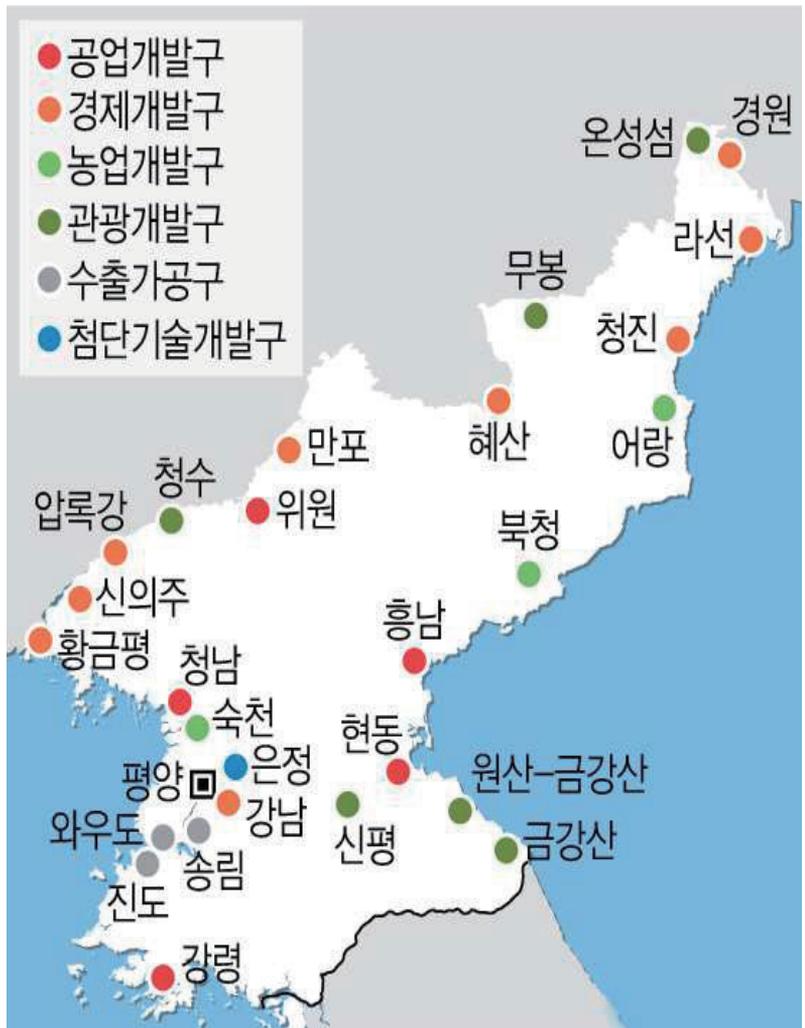
이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관광과 첨단산업 육성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북한은 금강산지대만 소개했으나 원산-금강산지대를 따로 추가했으며, 새로 등장한 경원경제개발구와 강남경제개발구는 첨단산업 육성을 포함한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은정첨단기술개발구에는 국가과학원과 관련 연구기관, 이과대학이 자리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은정첨단기술개발구를 다른 경제지구와 달리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등 연구개발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경제지대 유형별 분류

등급	유형	명칭
중앙급	공업	강령국제녹색시범구
	경제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관광	원산-금강산관광지대 금강산관광특구
	첨단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수출	진도수출가공구
시도급	공업	위원공업개발구 현동공업개발구 흥남공업개발구 청남공업개발구
	경제	만포경제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 경원경제개발구 해산경제개발구 압록강경제개발구 강남경제개발구
	농업	어랑농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관광	온성섬관광개발구 무봉국제관광특구 청수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수출	와우도수출가공구 송림수출가공구

북한 경제지대 지도



11) NK경제, 2018.12.06,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961>

강원권 산업동향

GS동해전력

GS동해전력은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강원도 동해시 일원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 또한 우리 다음세대에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친환경 발전소가 되기 위해 기존 발전소보다 높은 압력과 온도로 적용하는 초초임계¹²⁾ 기술을 채택하여 근원적으로 석탄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킴과 동시에 최첨단 환경설비 도입 및 친환경 공법 적용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고효율 친환경 발전소이다.

더 나아가 발전소 냉각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소 운영,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환경을 지키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발전소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 2011년 GS동해전력 설립
- 2012년 발전사업허가 취득
- 2013년 공사 착공, 프로젝트 금융약정 체결
- 2014년 보일러 압력부 설치
- 2015년 보일러 수압시험 실시
- 2016년 계통연결, 1호기, 2호기 상업운전 예정
- 2017년 1호기, 2호기 상업운전 개시

연 혁

GS동해전력은 기술과 환경 그리고 주변지역을 생각하는 상생경영을 가장 중요한 경영 원칙으로 하며,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전(發電) 전문 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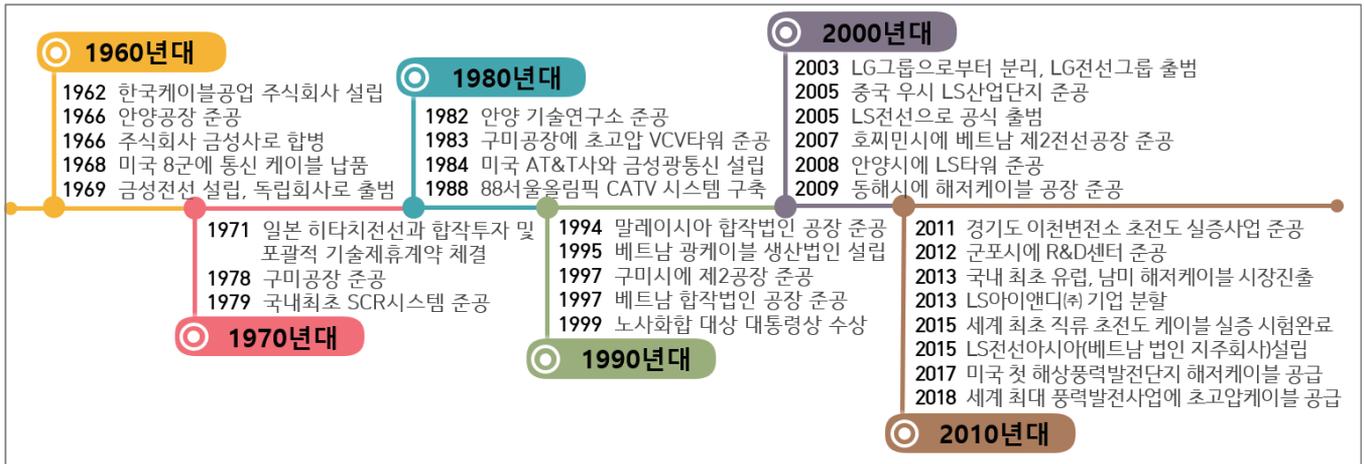


GS동해전력 전경

12) 초초임계란 기존 초임계압보다 더욱 높아진 증기 압력 246kg/cm² 이상이면서 증기온도 593도 이상인 발전소를 초초임계압(Ultra Super Critical)발전소라고 한다.

LS전선 동해공장

LS전선은 1962년에 설립되어 일상 생활에서부터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케이블 관련한 솔루션을 개발, 생산, 제공함으로써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전력망과 통신망 구축에 기여한 기업이다. 2009년에는 해저케이블의 수송이 용이한 동해항 인근에 동해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최첨단 설비를 갖춘 한국 최초의 해저케이블 동해공장이 그린비즈니스 및 해양용 솔루션 사업을 위한 전진기지과 블루오션 사업을 펼치는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연혁

현재는 해저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통신케이블 등의 첨단 제품을 북미와 남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전력청과 주요 중전기 업체, 통신사 등에 공급해 세계 산업의 동맥 역할을 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인정 받고 있다.

LS전선은 2009년 동해시와 인연을 맺은 후 북평 전통시장 전기 안전점검 지원, 겨울 김장 김치 기부, 장애인 시설에 차량 및 시설보수 후원 등 임직원 중심의 지역사회공헌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LS전선 동해공장 조감도

항만 · 물류 관련 용어사전

물류(物流, Logistics)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 보관 · 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 조립 · 분류 · 수리 · 포장 · 상표부착 · 판매 ·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항만(港灣, Port 또는 Harbor)이란

천연적으로 또는 인공을 가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출입 · 정박 및 계류시키고, 해운과 내륙 교통의 연결에 관한 각종의 물류활동이 행해지는 공통접속영역 장소로서 물류 · 생산 · 생활 · 정보 및 국제교역기능과 배후지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공간을 말한다.



항만의 분류

구 분	내 용
무역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과 무역을 하는 상품을 싣고 다니는 화물선이 출입하는 항만이며,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분류된다. - 국가관리항(14개항) :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목호항 - 지방관리항(17개항) : 서울항, 태안항, 제주항, 서귀포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연안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항은 연안화물을 수송하는 선박과 연안여객선 및 어선이 입출항하는 항만 - 연안항(29개항) : 가거항리항, 대천항, 대흑산도항, 비인항, 상왕등도항, 진도항, 홍도항, 송공항, 연평도항, 용기포항, 갈두항, 거문도항, 국도항, 부산남항, 나로도항, 녹동신항, 성산포항, 애월항, 구룡포항, 중화항, 추자항, 한림항, 화순항, 신마항, 울릉항, 화흥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후포항

동해러시아대게마을
Donghae City Russian Snow Crab Village

매 장 정 보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추암길 198(추암동)
- 전 화 : 1층 대게판매점 033)522-4774
2층 식 당 033)521-4776
- 영업시간 : AM10:00~PM21:00(연중무휴)
- 이용방법 (*상차림비 1인 4,000원 별도)
 - ① 1층에서 러시아대게를 구입하시면
 - ② 1층에서 대게를 찌서 2층으로 올려드리니
 - ③ 2층 식당에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 대게가격 : 수입가격에 따라 변동
*택배 가능합니다.